

제2공항 환경평가 연내 가능할까

환경부, 3차 재보완 요구... 마무리 시한 안 뒤 국토부 부실한 평가에 '편죄부' 아니냐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세번째 추가 재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2일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추가 재보완을 요구했다. 지난해 두 차례 이어 세 번째 이뤄진 보완요구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보완 요구는 두 번까지 가능하지만 추가로 사업

자(국토부)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협의의 통해 추가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추가 보완 요구를 한 배경은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주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일부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구체적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세 번째 보완 마무리 시기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국토부에서 추가 보완을 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가 관건인데, 자연생태 조사의 경우 계절적 특성이 반영돼야 하므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기간 제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마지막 절차인 이면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려나 부동의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번째 추가 보완까지 요구한 점을 볼 때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함에도 편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가뭄피해 최대 제주... 정부 지원은 꼴찌

전국 피해 중 제주 28.9% 예산지원은 4.6% 최하위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뭄 피해가 가장 컸던 제주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총 7만5162ha로 매년 평균 1만 5032ha씩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피해는 2016년과 201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논 물 마름과 밭 시들의 피해로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2만1747ha로 전국 피해 면적의 28.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전남(1만9609ha, 26.1%), 충남(9033ha, 12%)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전체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뭄의 피해를 직접 입었다.

그러나 가뭄피해가 가장 큰 제주에 정부가 지원한 가뭄피해 예산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가뭄대책 예산 총 1조9681억 원 중 충남(3949억원, 20.1%), 경북(3115억원, 15.8%), 전북(2645억원, 13.4%), 경남(2457억원, 12.5%) 등의 순으로 예산이 투입됐으나 제주는 903억원으로 4.6%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을 제외한 9개 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가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가뭄대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회=부미현기자



펜스만 남은 광화문 광장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광화문 광장에는 전날 개편된 집회 차단을 위한 경찰 버스 대신 펜스만 남아 있다. 연합뉴스

감귤 FTA기금 농가 지원조건 강화

최근 3년 원지정비 실적 추가 공동장비 구입비 등 지원 신설

2021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농가 지원 조건이 강화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계획'이 수립·공시됐다.

특히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경제 과원 조성에 따른 원지정비사업 실적 이 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 신규 적용된다. 원지정비사업은 최근 3년간(2018~20년) 실적에 대해 100% (5000㎡ 이상 만점)를 인정하고, 행정

보조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시행한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면적 산출은 읍면동 및 농·감협 합동 확인 후 이뤄진다.

감귤 비가림 하우스시설 지원단가는 5000㎡(약 1515평)당 지난해 1억9100만원에서 1억9462만원(감리비 포함)으로 올랐고, 본인 소유의 노지감귤 재배과원 대상지에 한해 지원된다.

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단가는 5000㎡당 지난해 5500만원에서 5611만1000원으로 올랐다.

내년부터 공동이용장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단가는 1대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동력파쇄기 등 공동이용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노지 및 하우스 등의 감귤원 무인 방제시설 지원사업 등 기존 13개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접수처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이다.

지원 대상지는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경영체,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공동이용 시설에 한함) 등이다.

사업비 지원조건은 보조 50%(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등이다. 다만 원지정비사업은 보조 70%(기금 20, 도비 50), 융자 20%, 자부담 10% 등이다.

국고융자 상환은 연리 고정금리 2.0%,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백귀탁기자 haru@ihalla.com

허리띠 졸라맨 제주 공직... 예산 구조 조정

업무추진비 등 내부경비 절감 80여 억 재원 민생경제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공직 내부에 투입되는 예산부터 줄이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2021년 예산편성에서 공직 내부 행정 경비에 대한 지출구조 조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세수 급감에 따른 '영기준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 행정내부경비에 대해서 선제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국외업무여비 등 행정내부경비가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삭감될 전망이다.

시찰·연수성 경비는 전액 또는 70% 삭감하고, 직원화합체육대회, 힐링캠프, 워크숍 등은 전액 삭감해 80여 억원의 재원을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인건비성 경비도 매년 결산 시 지적되는 과다불용액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범위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가보상비는 10월 이내(12→10월)로 줄이고, 무기계약직근

로자보수에 포함되는 워크숍, 국내탐방, 공무원직 노사합동 해외연수 등은 전체 축소할 방침이다.

벤처마킹을 비롯해 직원화합 체육 행사 및 동호회활동과 지원경비, 모범공무원 및 가족 등 문화탐방, 노사관련경비도 절감되며 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도 70% 삭감된다. 전부서의 업무추진비도 20% 삭감될 계획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보조금 30% 감축으로 민간 영역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직 내부경비에 대한 선제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제주 어가인구 전국서 가장 큰 폭 감소

15년 사이 62.6% 줄어 9123명

최근 15년 사이 제주 지역 어가인구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 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시도별 어가인구 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어가인구는 2005년 1만8617명에서 2019년 9123명으로 15년 사이 62.6% 감소했다.

제주지역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만명 대를 유지했으나 2015년

9800명 대로 감소한 뒤 2016년 9457명, 2017년 9251명, 2018년 9081명으로 감소하다 2019년 912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국의 어가인구는 2005년 22만 1000명에서 지난해 11만 3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1%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가장 감소폭이 컸고, 충남이 62.2%(27,309명→17,008명), 전남 61%(68,603명→42,060명), 전북 60%(10,182명→6,123명) 순이었다.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업현장은 외국인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05년 대비 2019년 연령별 어가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청년 어가인구 비율은 33%에서 17%로 16%p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 비율은 29%에서 39%로 10%p 상승했다. 외국인 선원은 2005년 7960명에서 2019년 2만633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19년 전체 취업선원 6만454명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은 43.6%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결의 근본대책은 어가소득 증대"라며 "현재 어가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73.4%(4841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三姓祠 秋期大祭

갈항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高·梁·夫三姓祠財團에서는 탐라(탁라)를 창시하신 三乙那의 위업을 기리고 추원하는 2020년도 삼성사 추기대제를 다음과 같이 봉향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20년 10월 10일(토) 10:00

■ 장 소 : 삼성사 삼성전 (제주시 소재 삼성혈)

■ 헌 관 : 초헌관 양영조(梁永祚) (제주시)
아헌관 부태림(夫泰琳) (제주시)
종헌관 고영명(高英明) (제주시)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도민 및 제족,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음복도 생략하여 봉향하오니, 제향에 참석하지 않아도 됨을 유념하여 주시고,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향일(10/10, 토) 삼성혈 관람시간은 13:00부터입니다.
2020. 10. .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
이사장 고 정 언

공부하는 농사, 농사짓는 공부!

2021학년도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제기 신입생 모집공고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마이스터)을 육성하는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대학은 2년 과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졸업증이 발급됩니다.

- 다 음 -

- 모집전공 : 친환경과수 I (감귤), 친환경과수 II (블루베리), 감귤 I, 감귤 II, 감귤 III, 참다래, 한우
- 모집인원 : 7개전공 168명 모집
- 원서접수기간 : 2020. 9. 14.(월) ~ 10. 30.(금)
- 원서접수 및 문의처
 - 친환경과수 I (감귤), 친환경과수 II (블루베리), 감귤 I, 감귤 II, 감귤 III, 참다래, 한우 : 대학 본부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1층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064-754-2694)]
 - 감귤 II, 참다래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064-760-7527)]
- 입학원서 배부 : 원서접수처에서 배부함
-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세요.

★졸업시 혜택

- 영농자금 우선 지원(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4조)
- 소정의 절차에 따라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
 - 후계농 지도(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 귀농자 등 연계)
 -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위촉
 - 농업경영컨설팅, 현장실습교수 등 자격부여
- 졸업조건 충족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졸업장 수여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JEJU AGRICULTURE MEISTER COLLEGE